

다산학 42호 (2023.6) | 059~100

원대 역학의 재평가와 다산역학 속 호병문의 위상

황병기 | 서경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목차

- 머리말
- 원대 역학의 학술 추세
- 원대 역학의 일반 평가에 대한 비평
- 원대 역학의 조선 수용과 호병문의 역할
- 정약용의 호병문 역설 수용의 양상
-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한국의 주역학 형성기에 원대의 역학 추세를 살펴보고, 조선 역학의 기본적인 추세와의 상호 관련성을 탐구하는 동시에, 원대 역학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 호병문胡炳文(1250~1333)의 역설이 특별히 조선 후기 정약용丁若鏞의 역학 속에 수용되는 양상을 분석한 논문이다.

한국의 주역학 서술은 조선 초기 권근의 『주역천전록』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삼국시대에 중국의 유학이 전래된 이래로 중앙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교육기관에서 공히 유학 경전을 교육했다. 고구려에서는 중앙의 태학太學과 지방의 경당扁堂에서 유학 경전 교육을 담당했고, 신라 때는 국학國學, 고려 때는 국자감國子監, 조선에서는 성균관成均館 및 향교鄕校, 서원書院 등에서 그 역할을 했다. 삼국시대 이래로 이들 교육기관에서 『주역』은 유학 경전 가운데 제1의 필수경전으로 강의되었다.¹⁾

그러나 유학 경전은 모두 외국어였기 때문에 삼국시대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글로 읽고 번역하려 시도했다. 신라 때 설총薛聰(655~?)이 방언方言으로 9경九經을 해석하여 후학을 교육했다²⁾고 하였으니, 그 역사가 짧지 않다. 그러나 아마도 당시의 방언 해석 작업은 오늘날의 현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번역의 개념과는 다르다.

암튼 한국에서의 주역학은 사료상으로 이미 2천여 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조선 이전의 역학 저술은 남아 있지 않다. 따

1) 한국의 『주역』 교육과 전승에 대해서는 줄고, 「조선 역학의 시대정신과 문화적 상대성—정약용의 역상학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57, 한국도교문화학회, 2022.11, 40~43쪽 참조.

2) 『三國遺事』 권4, 「元曉不羈」, “聰生而睿敏, 博通經史, …… 以方音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字.”

라서 한국의 주역학사 서술은 간략한 전사前史를 언급하고는 곧바로 권근의 『주역천건록』으로 넘어와야 한다.

여말선초라는 격변기, 한국에서도 왕조의 교체가 있었지만 중국에서도 왕조의 교체가 있었다. 한국에서의 주역학사 출발기(?)는 원대 역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주역학사는 원대 역학을 논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 어느 조대의 역학보다도 원대 역학의 비중과 위상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원대의 역학과 조선의 역학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위상과 걸맞지 않게 개별 역학자의 사상 연구에 치중하고 학술적 추세와 관련된 연구는 미진한 것 같다. 본 논문에서는 그것을 보완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2. 원대 역학의 학술 추세

원대 역학³⁾은 송역宋易의 연장선에서 전개된다. 주자학이 관학官學이 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모든 경서의 주석에서 정주程朱의 주석을 공부해야 했다. 역학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몇 학자의 역학을 개괄함으로써 원대 역학의 성격을 거칠게 조망할 것이다.

주희의 역학은 정이程頤의 역학을 계승했지만, 정이가 다루지 않았던

3) 장선문張善文이 저술한 『역대 역가역학요적歷代易家與易學要籍』(福州: 福建人民出版社, 1998)에 근거하여 원대 역학가로 다음과 같은 인물들을 묶을 수 있다. 허형許衡, 정역동丁易東, 뇌사제雷思齊, 오징吳澄, 유염유琰, 황택黃澤, 호일계胡一桂, 보파保巴, 조채趙采, 호진胡震, 왕신자王申子, 호병문胡炳文, 웅량보熊良輔, 장리張理, 이간李簡, 용인부龍仁夫, 소한중蕭漢中, 해몽解蒙, 증관曾貫, 동진경董眞卿, 전의방錢義方, 진응윤陳應潤 등이다.

상수를 『주역본의周易本義』에서 다룸으로써 자신의 역학이 의리와 상수를 겸비한 것임을 증명했다. 게다가 소옹邵雍의 상수학과 하도 낙서의 수를 채택함으로써 이른바 도서圖書역학의 길을 열었다. 원대 이후 중국의 명청대에도 주희의 역학이 존중되어 도서학이 성행하였고, 조선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북송시대의 역학자 가운데 정이는 의리역을 천명했고, 소옹은 상수역을 전개했는데, 남송에 와서 주희가 이 두 사람의 역을 통합하여 의리와 상수를 겸비하게 되자 주희 이후의 역학은 주희의 역학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원대 역학은 주희의 역학을 종주로 삼으면서 의리와 상수의 겸비라는 큰 틀 안에서 자신의 독자적 역학 영역을 구축했다.

『주역정주전의절충周易程朱傳義折衷』을 지은 조채趙采⁴⁾는 정이의 의리역과 주희의 상수역을 겸하여 주희의 역학을 종주로 삼았고, 여기에 더하여 당나라 이정조李鼎祚의 『주역집해周易集解』를 연구하여 주희의 역학정신을 이어갔다.⁵⁾ 청나라 초기에 편수된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이 책을 평가하기를, “송학을 종주로 삼았지만, 상수의 호변互變도 함께 다루었고, 한대 상수의 뜻을 보존한 것이 많다.”⁶⁾라고 평가한 것을 보면, 원대 역학의 특징적 단면을 읽을 수 있다. 주희가 주장한 의리와 상수의 겸비라는 큰 틀 안에서 자신의 특징점을 찾아 드러내는 방식의 역학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주역회통周易會通』을 지은 동진경董貞卿의 역학도 비슷한 경향을 띤다. 의리와 상수를 겸비하여 주희의 노선을 밟아가면서 자신의 역학을

4) 조채趙采: 생물 미상. 원나라 동천潼川 사람으로, 자가 덕량德亮, 호가 용재隆齋이다. 『경의고經義考』와 『사고전서제요』에 그 기록이 있다.

5) 潘雨廷, 『讀易提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294쪽 참조.

6) 『四庫全書總目提要』 권4, 경부4, 역류4, 115쪽.

보완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이 또한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평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러 학자의 역학이 길은 다르지만 귀결점은 동일하므로, 두루 검비하여 하나의 역설을 위주로 하지 않고, 상수와 의리의 두 이론을 공평하게 다루려고 힘썼다. 여기에 소식蘇軾, 주진朱震, 임률林栗의 책을 주희는 취하지 않았지만, 그는 함께 수록하였다.”⁷⁾ 그 또한 주희를 존송하는 맥락 속에서 상수와 의리를 검비하고, 자신의 역설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주역본의부록찬소周易本義附錄纂疏』를 지은 호일계胡一桂(1247~?)⁸⁾의 역학은 그의 아버지 호방평胡方平에 연원하며 주희의 역학을 전수했다. 호방평胡方平(1223~1278)은 송나라 학자로 분류되는데, 자가 사노師魯, 호가 옥재玉齋이다. 일찍이 동몽정董夢程에게 역학을 전수받고, 이어서 심귀보沈貴瑞를 스승으로 섬겼다. 동몽정의 학문은 주자의 사위인 황간黃幹에서 나왔다. 따라서 이들의 학문은 주자학을 계승한 것이고, 호방평과 그에게서 배운 호일계는 모두 주자의 학설을 독실하게 계승하였다. 『주역』에 20여 년을 정진하였고, 주희의 역학을 발명하여 『역학계몽통석易學啓蒙通釋』(1289)을 남겼다. 호일계의 제자가 위에 언급한 동진경董眞卿(鄱陽董氏)이다. 정주학을 깊이 연구하는 한편, 주자의 『주역본의』에 주자의 문집과 어록 중에서 취하여 부록을 만들고, 다른 학자들의 학설 중 『주역본의』와 부합되는 것을 모아 『주역본의부록찬소周

7) 『四庫全書總目提要』 권4, 경부4, 역류4, 124쪽, “眞卿以爲諸家之易, 途雖殊而歸則同, 故兼搜博採, 不主一說, 務持象數・義理二家之平, 即蘇軾・朱震・林栗之書爲朱子所不取者, 亦並錄焉.”

8) 호일계胡一桂: 1247~?. 원대의 성리학자로, 휘주徽州 무원婺源(현 강서성 上饒市) 사람이며, 호방평胡方平의 아들이다. 자가 정방庭芳, 호가 쌍호雙湖로, 역학에 정밀했으며, 1264년(남송 경정景定 5) 18세 때 향천鄉薦되었으나 진사進士에 급제하지 못하고 물러나 향리에서 강학하며 일생을 마쳤다. 『주역본의부록찬소周易本義附錄纂疏』 15권을 저술하였다.

『易本義附錄纂疏』를 저술한 것이다.⁹⁾ 호일계의 역학도 원대 학술의 기초에 매우 충실했고, 의리와 상수를 겸하는 주희 역학의 기본 정신을 종주로 삼으면서 의리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점을 쳐서 의리를 찾아내는 것만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찬언易纂言』을 지은 오징吳澄(1249~1333)¹⁰⁾은 어려서 요로饒魯의 제자인 정약용程若庸에게 배웠고, 그후 정소개程紹開를 사사했다. 요로堯魯는 황간黃幹의 제자이니, 주희의 사전제자四傳弟子로, 리학理學을 위주로 하면서 심학心學도 아울러 취하여 주희와 육구연의 학문을 융합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다. 오징은 스승 정약용程若庸과 함께 요로의 학문을 계승하여 주희와 육구연의 학문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역학 분야에 있어 주희의 의리와 상수를 겸하는 역학을 종주로 삼으면서 소옹의 선천 후천의 주장을 높이 평가하였다. 기본적으로 오징도 주희의 역학적 큰 틀 안에서 독특한 경지를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대역집설大易緝說』을 지은 왕신자王申子¹¹⁾는 송말에 태어나서 생애 대부분을 원元 시기에 살았던 원나라 역학자이다. 그는 평생 은거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학 분야에서 적잖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는다.¹²⁾ 그는 『대역집설大易緝說』과 『춘추류

9) 『宋元學案』, 「胡玉齋先生方平」편 참조.

10) 오징吳澄: 원나라의 성리학자로, 자가 유청幼淸 또는 백청伯淸, 호가 초려草廬 또는 임천臨川, 시호가 문정文正이고, 원나라 무주撫州(현 강서성 소제) 송인崇仁 사람이다. 송나라 함순咸淳 연간에 진사 시험에서 떨어지고 돌아와 초옥草屋에서 살았기 때문에 초려草廬라는 호를 얻었다. 허형許衡, 유인劉因과 더불어 원나라의 저명한 학자로, 저서로 『오경찬언五經纂言』 등이 있다.

11) 왕신자王申子: 생몰 미상. 원나라의 역학자로, 공주邳州 사람이며, 자가 손경巽卿이다. 일생을 산림에 은거하며 저술하고 강학했다. 저서로 『대역집설大易集說』 10권이 전해진다.

12) 劉云超, 「融通和會 自得於心—宋儒王申子理氣觀的特色與價值」, 『철학연구』 136, 대한철학회, 2015 참조.

전『春秋類傳』이라는 두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지금 『대역집설』만이 전한다. 그는 원대 학술의 의리와 상수 검비의 기본 추세에 따라 유가와 도가를 융합하고, 주자학과 육왕학을 아우르는 특징이 있다. 류원차오 劉云超는 논문(2015)에서 왕신자를 “당시의 주류 학술사상뿐만 아니라 모든 학파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자신의 독특한 역학체계를 형성했다. 그의 이기理氣觀은 대체적으로 유가와 도가사상을 융합하고 주자학과 육왕학을 아우르는 송·원시기의 학술추세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일반적인 학술적 관행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공부해서 체득한 독창적인 견해를 제기했다. 어떤 때에는 당시 매우 권위 있는 관점에 대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했다.”¹³⁾라고 비평했다. 류원차오는 그의 역학에 대해, 모든 학파의 관점을 분석하고 헤아려 서로간의 절충과 조화를 시도하였고, 이론적인 방면에서 매우 독창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사실 류원차오가 왕신자의 역학을 평가하는 문법은 원대 대부분의 역학자를 평가하는 문법이 될 수 있다. 주자학이 관학으로 승격하면서 육왕학을 통합하고, 역학 방면에서는 의리와 상수를 검비하는 통합적 사유를 추구하는 학술적 분위기로 보면 주자학의 아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희가 설정한 이러한 학술적 분위기는 원대 학자들에 의해 내용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주희가 길을 열었지만 그 길을 포장하고 건물을 세운 것이 바로 원대인들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외에 『역학변통易學變通』을 지은 증관曾貫¹⁴⁾은 순수하게 의리만을

13) 劉云超, 「融通和會 自得於心—宋儒王申子理氣觀的特色與價值」, 『철학연구』 136, 대한철학회, 2015, 257쪽.

14) 증관曾貫: 원나라 태화泰和(현 강서성 소재) 사람으로, 자가 전도傳道이다. 『경의고經義考』와 『사고전서제요』에 그 기록이 있다.

위주로 하여 역학을 논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러는 속에서도 하도 낙서의 수에 역의 원리와 작용이 다 들어있다는 주장을 함께 펴으로써 크게는 의리와 상수 겸비의 틀 속에서 의리를 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역집설周易集說』, 『주역참동계발휘周易參同契發揮』 등을 저술한 유염(俞琰)(1258~1327)¹⁵⁾은 도교역학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표면적으로는 원대 학술의 추세에 따라 주희의 『주역본의』를 위주로 하여 역학을 전개하였다. 그가 『주역참동계발휘周易參同契發揮』와 『역외별전易外別傳』을 지어 참동계를 풀이하고 북송의 도사라고 하는 진단(陳搏)과 소옹의 상수역을 발전시킨 것은 그가 도교역학을 계승한 자로 분류된다고는 하지만 원대의 기조인 의리와 상수의 겸비라는 주희 역학의 기본정신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는 송나라가 망하자 벼슬하지 않고 저술에만 전념했으나, 시기로는 원(元) 시기를 살았으나 송나라의 유로(遺老)에 속하는 인물이다.

3. 원대 역학의 일반 평가에 대한 비평

원대는 송역이 깊이 있게 발전한 시기이다. 남송을 접수한 원은 남송기에 학술적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던 주자학을 관학으로 승격시키면서 정주(程朱)의 주석을 국가 표준 텍스트로 확정지었다. 여기에는 자연스런 학술적 추세도 있었겠지만 정치적 개입도 있었을 것이다.

15) 유염(俞琰): 송말원초의 역학자로 이름은 완琬이며, 평강(平江) 오현(吳縣) 사람이다. 자가 옥(玉)吾이고, 자호는 전양자(全陽子), 임옥산인(林屋山人) 등이며, 석간선생(石澗先生)으로 불렸다. 『주역집설周易集說』 40권, 『주역참동계발휘周易參同契發揮』 3권 등을 남겼다.

몽골은 원나라를 세운 뒤 한족을 회유하기 위해 한족 학자들을 대거 선발하여 유학을 힘써 장려하였고, 과거시험에 주희주를 표준 답안으로 삼았다. 이로부터 정주리학은 관방의 경학이 되었다. 원나라가 정립한 이러한 관방 경학은 명나라에 그대로 전승되어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을 반포하면서 송학을 표방하였으니, 곧 송학이 결국 한당경학의 『오경정의』를 대체하여 지배적 지위를 점유하는 학술이 되었다. 따라서 명대 학술은 원대 학술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것이다.

역학에 있어서는 주희주가 표준 주석으로 승인된 이후, 『주역본의』와 『역학계몽易學啟蒙』에 대한 주석서가 원대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출현하였다. 호일계胡一桂가 지은 『주역본의부록찬소周易本義附錄纂疏』는 주희의 『본의』를 위주로 하여 『주자문집』과 『주자어류』에서 역리를 강론한 것들을 모아 부록을 만들고, 유가 각 학파의 역설 가운데 『본의』에 합치하는 것들을 모아 찬주를 만든 것이다. 또 그의 『역학계몽익전易學啟蒙翼傳』은 스스로 주희의 『역학계몽』의 우익을 자처하면서 주희가 긍정한 상수역설을 해설한 책이다. 호병문胡炳文은 『주역본의통석周易本義通釋』을 지었고, 동진경董真卿은 『주역회통周易會通』을 지었는데, 모두 주희의 역학을 천명하였다.

원대의 이러한 학술 추세는 명나라 때에도 큰 변화가 없었고, 호광胡廣이 성조成祖의 어명으로 편찬한 『주역대전周易大全』은 각 학파의 역설을 초록한 뒤 정주의 뜻으로 시비를 판단한 책이다. 역학분야에서 원대에 채택된 표준 주석인 정주역학은리학사유의패권을의미하는것이며, 이때 형성된 정주역학의 패권은 동아시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원대 역학의 기본적인 학술 추세는 주희가 『주역본의』와 『역학계몽』에서 말하고자 한 의리와 상수를 겸비한 상수역학, 곧 도서학적 상수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희의 역학이 의리와 상수를 겸하는 패권적 추세를 누린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의리역과 상수역의 양대 유파로 엄연히 존재했고, 세부적으로도 의리역학은 또 리학과 기학과 심학이라는 세 유파로 분화되었으며, 상수역학은 또 수학과 상학의 두 유파로 분화된 시기가 또한 원대 역학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북송으로부터 남송에 이르는 송역宋易의 유산으로 정주의 리학理學과 육구연陸九淵의 심학心學, 장재張載의 기학氣學, 그리고 소옹의 수학數學 등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대 역학이 송대 역학의 큰 틀 속에서 발전한 것은 맞지만, 아류에 머무는 것은 아니며 역학의 분파적 철학화 작업이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원대라고 할 것이다.

상수역학 분야에 있어서 분파적 철학화는 상학과 수학의 발전을 가지고 논할 수 있다. 도교 대사大師 뇌사제雷思齊(1231~1303)¹⁶⁾는 유목劉穆과 소옹邵雍의 역학을 계승하였고, 구궁도九宮圖를 핵심으로 하여 역리를 해석하였다. 그는 수를 위주로 하여 수가 있는 뒤에 상이 있는 것이라 하였으니, 상수역 중의 수학을 발전시킨 사람이다. 이에 반해 유염俞琰과 장리張理와 소한중蕭漢中¹⁷⁾ 등은 먼저 상이 있고 나서 수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니, 상수역 중의 상학을 발전시킨 사람이다. 따라서 원대 역학의 상수역 분야는 상과 수의 분파적 발전이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상학과 수학이 기본적으로 하도와 낙서 등의 도서에서 역리

16) 뇌사제雷思齊: 1231~1303. 원나라 역학자로 임천臨川(현 강서성 소재) 사람이며 자는 제현諸賢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수도생활을 하였고, 오석관烏石觀이라는 도교사원의 도사가 되었다. 저서로 『역도통변易圖通變』 5권, 『역서통변易筮通變』 3권이 있다.

17) 소한중蕭漢中: 원말명초의 학자로, 태화泰和(지금의 강서성 소재) 사람이며, 자는 경원景元이다. 그의 역설은 소옹邵雍의 역학에서 나왔는데 패서卦序에 대해 설명한 것이 자못 정밀하였다. 저서로 『독역고원讀易考源』이 있는데, 명나라의 주승朱升(1299~1370)이 『주역방주周易旁註』에 그의 문장을 채록하여 책 뒤에 부록으로 달아서 보존될 수 있었다.

를 해설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원대의 상수역학을 역도학易圖學 또는 도서학圖書學이라 칭한다.

의리역학 분야에 있어서 분과적 철학화는 각 학파의 특징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의리역 중의 리학과는 정주의 기본 교리를 철저히 따라가면서 자신의 비평적 관점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심화되어 갔다. 외면적으로 정주의 주석에서 한 발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리학적 역학이 체계화되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당시 남방의 대유학자 오징吳澄은 정주학을 전수하여 정주 역학의 계승자임을 자임하였지만, 그의 역학은 주희의 관점에서 나아가 상象에 근거하여 리理를 상象에서 도출하는 작업을 하였고, 또 ‘리불리기理不離氣(리가 기를 떠나지 않음)’의 관점을 천명하였다. 이는 주희의 이기관과 상수역을 존송하는 큰 틀 안에서 개인적인 철학화 작업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정완징鄭萬耕은 『주역지식총람周易知識總覽』에서 송원 시대의 역학을 중국역학사의 발전단계론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원나라와 명나라 시기는 고대 역학 번영의 시기였다. 송대에 형성되어 발전한 상수학과 의리학이 원나라와 명나라 역학가와 철학가의 천발을 거쳐서 명말청초에 최고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중국 후기 봉건사회의 사상문화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¹⁸⁾라고 한다. 곧 원대 역학은 고대 역학이 상수학과 의리학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프레임으로 재편되는 시기의 역학이며, 이 시기에 형성 발전한 상수와 의리의 절충이 결국 명말청초의 고도로 발전한 학문의 기초가 되었다는 말로 이해된다.

그런데 라오밍춘廖名春과 kang웨웨이康學偉, 량웨이센梁韋弦 세 학자가

18) 朱伯崑 주편, 『周易知識總覽』, 濟南: 齊魯書社, 340쪽. (1)元明易學發展的基本傾向(鄭萬耕 작성).

1991년 공동 출간한 『주역연구사周易研究史』(長沙: 湖南出版社, 1991)¹⁹⁾를 분석해보면 원대 역학이 상대적으로 폄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한국어 번역본을 기준으로 이 책의 목차에 따른 각 시대별 비중을 살펴보자.

선진역학: 106쪽

양한역학: 100쪽

위진수당역학: 104쪽

송원역학: 204쪽

명청역학: 140쪽

현대역학: 112쪽

책의 구성으로 보면 역학의 분기점이랄 수 있는 시대를 묶어 각 시대별로 약 100쪽 가량의 분량으로 균형적 안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역학과 현대역학 장을 제외하고, 대체로 두 왕조 시기를 하나의 역학 단계로 묶어서 단계별 역학의 성격을 대략 알 수 있게 잘 구성했다고 할 것이다.

선진역학기는 역학의 탄생기로부터 기점을 삼으므로 길게는 3,000여 년의 시기이지만, 자료의 한계상 용인될 수 있는 분량으로 정리되었고, 양한역학기는 약 400년이 넘는 기간이면서 한역漢易의 성립기이지만 일실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 분량이다. 위진수당역학

19) 이 책은 1994년 심경호 교수가 『주역철학사』(예문서원, 1994)라는 이름으로 한국어로 번역 출간하였다. 이 중국인 저자들은 역학 분야에서 저명한 인물들이고, 현재도 역학의 대가들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기는 약 600년 넘는 기간으로 왕필의 역학이 정통역학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역학의 여타 이론들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또한 이해될 수 있는 분량이다. 송원역학기는 400여 년의 비교적 짧은 시기이지만 소옹, 정이, 주희 등 걸출한 역학자들을 배출한 시기이므로 200쪽이 아깝지 않은 분량이다. 명청역학기는 박학역이 등장하여 많은 역학자들이 활동하였고 최근세기로서 자료가 풍성하니 140쪽도 부족한 면이 있다. 현대역학기는 짧지만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시기이니만큼 가능한 분량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시기 및 주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문제를 제기해본다. 책 가운데 송원역학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1절에서 송대 역학을 개설하고, 2절은 북송의 상수와 역학을, 3절은 남송의 상수와 역학을 다루었다. 2부도 세 절로 나누었는데, 1절에서는 북송의 의리파 역학을, 2절에서는 남송의 의리파 역학을 다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서 '원대의 송역'이라는 타이틀로 원대 역학을 언급하였다. 이를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4장 송원 시대의 역학 1부 365

제1절 송대 역학 개설 365

제2절 북송의 상수와 역학 377

제3절 남송의 상수와 역학 417

제5장 송원 시대의 역학 2부 439

제1절 북송의 의리파 역학 439

제2절 남송의 의리파 역학 509

제3절 원대의 송역 551 ~ 569 (쪽수는 번역본 기준)

쪽수의 양을 산출하면, 송대 역학 개설이 12쪽, 북송 상수역이 40쪽,

남송 상수역이 22쪽, 북송 의리역이 70쪽, 남송 의리역이 42쪽으로 총 185쪽을 차지한다. 반면에 원대의 역학은 ‘원대의 송역’이라는 제목으로 단 18쪽밖에 할애하지 않았다.

원대에도 의리역이 있고 상수역이 있는데, 제목을 ‘원대의 송역’이라 붙여 원대의 역학은 송역의 아류로 평가절하하였다. 이 책의 저자들이 송역 이후의 역학을 기본적으로 한역漢易과 송역宋易의 대립과 수용의 역학사로 보기 때문에 생긴 분류이긴 하지만 원대에 송역만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대단히 의도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저자들은 원대 역학을 총평하면서, “요컨대 원대 역학은 송대 역학을 계승하여, 원대인이 『주역』을 연구한 방법과 내용은 기본적으로 송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정주리학의 지위가 확립됨에 따라 원대 유학자의 역 해석은 대부분 정주程朱를 종지로 삼았다. 그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주희를 더 높이 쳤다. 주희의 역학이 상수를 겸하여 논하였으므로, 원대인의 역학은 의리학과 상수학을 합류시키는 남송 역학의 경향을 더욱 발전시켰고, 소옹의 상수학과 도교 역학을 한층 더 깊이 발명하였다.”²⁰⁾라고 짧게 정리하였다.

“정주리학의 지위가 확립됨에 따라 원대 유학자의 역 해석은 대부분 정주程朱를 종지로 삼았다.”라는 말은 일리가 있는 평가이다. 송대에 중국역학사상 상수역과 의리역의 위대한 인물들이 출현하여 이후의 중국역학을 인도하였고, 원대에 주자학이 관학으로 승격하면서 도서학과 의리역을 포괄하고 있는 송역은 상수역에 치중했던 한역과 대비되었기 때문에 송역의 완성 이후 역학은 송역과 한역의 양대 학맥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명청시기, 그리고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

20) 廖名春, 康學偉, 梁韋弦 著, 『周易研究史』, 長沙: 湖南出版社, 1991(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4, 567쪽).

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선 안 되는 점이 있는데, 주자학을 관학화한 것이 바로 원대인이라는 것이다. 주자학을 관학화하여 존송한 것도 원대인의 학문적 이상을 담아낸 것이다. 결국 중국사에서 역학분야만 놓고 보더라도 한역과 송역의 대립구도는 바로 원대인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이다. 송대의 리학 구도는 정치학적으로는 인성의 차별 없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족 왕조의 원대인에게 리학의 원만한 활용과 응용은 곧 세계통치에 결정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역학 분야에서도 주희가 채택한 선천후천이론은 결국 선천의 시기에 차별 없는 이상적 세계가 있었고, 이것이 차별적 후천세계를 탄생한 것이므로 획전畫前의 원리적으로 형이상학적 초월적인 이상을 확보한다면 이민족 정권도 중국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자학적 구도, 즉 송역의 한역에 대한 대응은 곧 원대인의 구도가 된 것이다. 이것은 곧 필자가 줄고 「원대 이후 『주역』 주석사에 나타난 중부괘 豚魚의 의미 연구」(2013)²¹⁾에서 중부괘 ‘돈어豚魚’가 비친한 돼지나 물속에 숨어사는 물고기 같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상괘이나 돌고래 같이 어부들이 바람의 방향을 그들의 헤엄치는 모양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신뢰의 상징, 믿음의 신호, 곧 ‘최신자最信者’로 원대의 일군의 역학자들이 일제히 주장하는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원대인의 역학은 남송 역학의 경향을 더욱 발전시켰고, 소옹의 상수학과 도교 역학을 한층 더 깊이 발명하였다.”라는 평가는 실제로 우리가 원대 역학의 가치와 위상을 평가한다면 핵심적인 평가내용이 되는 말이지만, 이들이 원대역학을 정리한 전체 맥락으로 볼 때 다분히 수사

21) 황병기, 「원대 이후 『주역』 주석사에 나타난 중부괘 豚魚의 의미 연구」, 『은지논총』 37, 은지학회, 2013.

적인 표현이다. 이들이 하고자 한 말은 “원대 역학은 송대 역학을 계승하여, 기본적으로 송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이 세 저자의 의도는 원대 역학의 발전을 송대 역학의 발전의 한 양상으로 평가절하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의도치 않게 원대 역학의 독특한 특징을 잘 잡아내었다. 곧 “소옹의 상수학과 도교역학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라는 것이다. 이 말은 원대 역학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원대 역학을 이렇게 송역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다방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중부中孚괘 패사의 주석사에서 원대 역학의 특이점을 제출한 바 있다. 패사의 물상 ‘돈어豚魚’에 대한 원대인의 동시다발적 돌출 발언은 원대 역학의 이전 역학과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아래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대에는 초기부터 강돈설江豚說이 우세했다. 유염과 정역동, 오징 등이 거의 동시대에 돈어강돈설을 제기했다. 주역의 주석사에서 매우 이채로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원대에 호병문이 ‘주희는 『주역본의』에서 강돈설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주희 이전에 강돈으로 주석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아마도 원대 초기 이후 강돈설이 우세했던 상황에서 호병문이 거꾸로 유추한 결과일 것이다. 어떻게 갑자기 한 시기에 강돈설이 주역의 주석사에 등장하여 압도하게 되었을까. 원대인의 심리도 청대인의 것과 같았을 것이다. 어쩌면 중국천하를 누린 청조보다도 지구천하를 누린 원조의 사람들은 더 사고의 규모가 달랐을 것이다. 원대의 학자들이 동시에 돈어를 최신자最信者의 단계로 격상시킨 것은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허문, 어쩌면 중국적 화이관을 부정한 파격일 것이다.”²²⁾

22) 황병기, 「원대 이후 『주역』 주석사에 나타난 중부괘 豚魚의 의미 연구」, 《온지논총》 37, 온지학회, 2013, 242쪽. 공자가 「단전」에서 중부괘의 믿음이 돼지와 물고기에게까지 미친다

4. 원대 역학의 조선 수용과 호병문의 역학

원대의 저명한 역학자 오징吳澄은 조선 역학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상수역학 방법론은 조선 후기의 정약용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정약용의 역리사법 가운데 호체법互體法은 중효中爻를 가지고 새로운 괘를 만드는 방법이다. 정약용의 호체법의 핵심은 양호작괘兩互作卦, 곧 2, 3, 4효를 묶어 하체로 삼고 3, 4, 5효를 묶어 상체로 삼아서 새로운 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괘효사의 의문의 물상들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 정약용은 이 호체법의 연원을 금나라 군주 완안량完顔亮(1122~1161)의 고사²³⁾에 두었으며, 또 완안량의 사례를 적용한 원나라 시대 오징의 호체법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오징은 태泰괘 육5 효사에서 “태泰괘의 두 호체와 괘변이 모두 귀매歸妹괘가 되므로 ‘누이동생을 시집보낸다(歸妹)’는 말을 효사로 삼았다.”²⁴⁾라고 하였다. 정약용은 “송나라 때에 금나라의 군주 완안량完顔亮이 침범해 오자 시초점을 쳐서 수隨괘를 얻었는데, 점자가 말하기를 ‘두 호체가 점漸괘가 된다’고 했던 것도 이 방법이다.”²⁵⁾라고 하여, 태泰괘의 두 호체가 귀매歸妹괘가 되고, 수隨괘의 두 호체가 점漸괘가 되는 것이 모두 양호작괘의 방법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두 사람이 활용한

면 길하다고 한 이래로 ‘돈어’는 돼지와 물고기 같은 미물을 상징했다. 주희 또한 무지한 동물로 간주했다. 그러나 원대에 와서 갑자기 이전에 거의 주장된 바 없는 상괘이나 돌고래로 보는 주장들이 생겨났다. ‘江豚’이 바로 상괘이 또는 돌고래이다.

23) 완안량完顔亮의 점례에 대해서는 방인, 「다산의 양호작괘법」(『다산학』 30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7)을 참조.

24) 吳澄, 『易纂言』(文淵閣四庫全書本), 泰卦 육5. “泰卦互體及卦變, 皆成歸妹卦, 故以歸妹爲辭.”

25) 『周易四箋』 권1, 晉卦卦辭 茶山箋(『定本』 제15책, 48쪽). “宋時, 金主完顔亮入寇, 筮之遇隨卦, 占者曰‘兩互爲漸’, 亦此法也.”

호체는 오직 가운데의 네 효(中爻)에서 두 호체를 취하였을 뿐 초효와 상효는 취하지 않았다. 이는 『계사전』에서 “일을 뒤섞고 성질들을 기술함에 있어 중효中爻가 아니면 갖추어지지 않는다.”²⁶⁾라고 한 말을 가장 철저히 준용한 것이다.

조선 중기 조호익曹好益(1545~1609)의 역학에 원대인의 역학이 잘 드러난다. 조호익의 『역상설易象說』은 상수학적 방법론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는데, 호체互體, 사체似體, 복체伏體, 반체反體, 변체變體 등도 활용했다. 그는 호일계胡一桂(1247~?)와 북송의 주진朱震(1072~1138)의 역학 등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임재규는 “조호익 『역상설易象說』의 상수학적 연원은 호일계의 『주역본의부록찬주周易本義附錄纂注』와 주진의 『한상역전漢上易傳』에서 모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주역본의부록찬주』의 ‘우위愚謂’나 ‘우안愚案’ 부분, 그리고 『한상역전漢上易傳』의 한대 상수학적 성격에 있다.”²⁷⁾라고 규명한 바 있다. 조호익이 역해석에 사용한 십이소식十二消息, 납갑納甲, 승강升降, 호체互體, 비복飛伏, 반체反體, 사체似體, 효위爻位, 효변爻變 등은 모두 중국 한대의 상수역학 방법론들이다. 조호익은 주희의 역학을 추종하여 그의 계승자임을 자처했지만, 주희가 역학의 점서적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한 도서학적 방법론과 전혀 다른 한대 상수역 방법론을 가져다 역해석을 진행한 것이다. 조호익이 역해석에 사용한 상수역학 방법론인 호체互體, 사체似體, 복체伏體, 반체反體, 변체變體 등은 주희의 『본의』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결국 주희를 존송하고 주희 역학의 계승을 자임하면서도 전혀 다른 방법론들을 사용했던 것이다.

26) 『주역』 「繫辭傳下」, “雜物撰德, 非中爻不備.”

27) 임재규, 「조호익 『역상설』의 상수학적 연원」, 『대순사상논총』 38, 대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2021, 205쪽.

조호익이 주희의 역학을 추종한 것은 원대 역학이 추구한 기본 노선 곧 의리와 상수를 겸비하는 노선 상에서인 것이지만, 목적을 같이하면 서도 실제 사용한 방법론은 한대의 상수역 방법론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이전의 논문(2021)에서 “한대의 상수학은 엄밀하게는 상학象學과 수학數學의 결합 체계인데, 송대 이후에 수학적 전통은 소옹과 주희의 도서학적 역학에서 비교적 독자적인 모습으로 계승 발전하였고, 상학은 상과 수가 결합된 상수역학이라는 큰 프레임 속에서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그 존재가치를 발휘하였다. 조호익의 역해석에서 사용된 승강升降, 호체互體, 비복飛伏, 반체反體, 사체似體, 효위爻位, 효변爻變 등은 상학의 전형적인 해석틀이다. 이것은 주희가 『주역』을 점서로 파악하면서 상象과 점占을 『주역』의 핵심가치로 부각시킨 것과 관련이 있지만, 점占이 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희와는 역해석에 있어 다른 노선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²⁸⁾라고 총평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조호익의 역학과 원대 역학의 상관성을 제기할 수 있다.

조호익은 『역상설易象說』에서 『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에 인용되어 있는 총 112명의 송원대 역학자 중에서 30여 명의 주석을 인용했다. 원대의 학자 호일계胡一桂를 70회 이상 인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원대의 학자 호병문胡炳文을 35회 가량 인용했다. 원대 역학의 거론 내용을 상당히 비중 있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호일계와 호병문이 모두 주희 역학의 계승자임을 자임하고 있으니, 결국 주희 역학의 큰 틀 내에서 관학적 성격과는 다른 별도의 상수역학 성격을 드러낸 것이다.

정약용의 양호작괘법은 중국의 금金과 원元 시기에 방법론의 하나로

28) 황병기, 「조호익 『역상설易象說』의 역학사상과 그 위상」, 『태동고전연구』 47,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21, 199~229쪽 참조.

공고화된 것이다. 이는 호체를 이용해 새로운 패를 만들고 본패와의 상호연계를 통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인데, 중심과 주변 논리로 볼 때, 본패는 중심이며 호패는 주변에 해당한다. 이민족의 시대에 주변의 논리가 해석의 중심에 오게 된 것은 시대정신과 문화의 반영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약용의 역학이 한대 상수역학 방법론을 채용하는 과정에 야만과 이방의 역학이 다산역의 핵심에 들어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조선 역학자들의 문장 속에 원대의 쌍호雙湖 호일계胡一桂, 운봉雲峯 호병문胡炳文(1250~1333), 과양鄆陽 동진경董眞卿²⁹⁾ 등의 역설이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으니 원대 역학은 그 가치와 위상이 결코 작지 않다.

한국의 역학계에서도 원대 역학에 소홀한 면이 있다. 여말선초의 원대 성리학 수용사와 관련된 논문들은 있으나 역학 분야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연구를 통해 조선 역학의 기원과 형성에 관한 더 나은 학술체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호병문胡炳文³⁰⁾은 종종 호일계胡一桂(1264~?)와 쌍으로 함께 불리며,

29) 동진경董眞卿: 생물 미상. 원나라의 역학자로 과양鄆陽(현 강서성 과양) 사람이며, 자가 계진季眞이다. 동몽정董夢程의 족제인 동정董鼎의 아들이며, 일찍이 호일계胡一桂의 제자가 되었고, 역학을 배워 『주역회통周易會通』 14권을 남겼다. 그의 책은 『통지당경해通志堂經解』에 편입되어 전한다.

30) 호병문胡炳文: 1250~1333. 원나라의 이학가이자 경학가로, 안휘성 무원婺源(강서성 上饒市) 고천考川사람이며, 고향에서 명경서원明經書院을 창건했고, 도일서원道一書院의 산장을 지냈다. 자가 중호仲虎, 호가 운봉雲峯으로 운봉선생으로 불렸다. 그의 아버지 호두원胡斗元이 주희의 종손 주홍범朱洪範으로부터 『서경』과 『주역』 두 경전을 전수받았고, 호병문이 다시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았다. 호병문은 중의학과 술수학 방면으로도 이름이 높았다. 이후 주희가 집주한 사서四書의 연구에 진력하면서 특히 요로饒魯(雙峯饒氏)의 설이 주희의 원의에서 벗어나 있음을 비판하였고, 『사서통四書通』을 지어 그 잘못된 점을 직접 교정하였다. 또한 『주역본의』를 절충 교정하고 아울러 여러 학자의 학설을 보충하여 『주역본의통석周易本義通釋』 12권을 지었다. 책의 처음 이름은 『주역본의정의周易

역학뿐만 아니라 사서학에 있어서도 주희를 종주로 삼았다. 그의 역학은 주희 역학의 우익^{右翼}으로 이해되었고, 그 자신도 주희 역학을 토대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계승의 노선 상에서만 보면 주희 역학의 우익 정도라고 하겠지만, 조채와 동진경의 경우처럼 호병문도 자신의 역설을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차별화되는 지점에서 원대의 각 역학자의 중요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는 ‘역’의 학통^{學統}을 제시했는데, 자신을 주희 역학의 계승자로 자처하였고, 주희 역학을 위주로 하여 주자학의 위상을 긍정하고 주희의 많은 논점에 찬성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 개인의 것이 있는 것이다.

주희가 주장한 의리와 상수의 검비라는 개념적 틀 속에서는 이것이 마치 메타언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원대에 의리와 상수를 검비하면서 자신의 역설을 개발한 모든 역학자의 노력들이 매몰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중국의 역학 평가자들이 혹은 역학철학사 서술자들이 원대 역학은 송역의 아류일 뿐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들의 독자적 영역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호병문은 복희로부터 시작하여 문왕과 주공, 그리고 공자의 단계를 거쳐 북송대의 소옹^{邵雍}(1011~1077)과 정이^{程頤}(1033~1107), 그리고 남송의 주희에 이르는 역학의 도통^{道統}을 세웠다. 네 시기의 성인들에 의해 역易이 성립된 것임을 주장하였고, 각각의 독자성을 인정하였다.

“대단하구나. 주자가 말하기를, ‘복희의 역易은 자체로 복희역이고, 문왕과 주공의 역易은 자체로 문왕과 주공의 역易이며, 공자

本義精義’였고, 『통지당경해通志堂經解』에 들어있다. 이밖에 『서집해書集解』, 『춘추집해春秋集解』, 『예서찬술禮書纂述』, 『사서통四書通』, 『대학지장도大學指掌圖』, 『오경회의五經會義』, 『이아운어爾雅韻語』 등이 있다.

의 역易은 자체로 공자의 역易이다'라고 하였다."³¹⁾

학술상에서 도통을 논하는 것은 자신의 역설을 정통의 범주에서 스스로 높이기 때문이다. 호병문은 원대 역학이 주자학을 채택한 기본 모토를 유지하면서 각 단계의 역학 성과를 인정하고 그것을 포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5. 정약용의 호병문胡炳文 역설 수용의 양상

대체로 호병문의 역설은 정약용에게 네 가지 양상으로 수용된다. 첫째는 역리사범 가운데 호체의 사용에 대한 보증이고, 둘째는 새로운 물상에 대한 적용이며, 셋째는 검증용 소재로 인용되는 사례이고, 넷째는 반박용 소재로 활용하는 예이다.

1) 호체 활용의 권위로 수용

정약용은 위아래로 중첩된 겹괘(重卦)를 정체正體와 호체互體로 구분하여 논하였는데, 정체란 6획 중의 1-2-3호와 4-5-6호를 이르는 말이고, 호체는 이른바 중효中爻 곧 1호와 6호를 제외한 중간의 2-3-4-5호 가운데서 2-3-4호를 아래의 호체로 묶고 3-4-5호를 위의 호체로 묶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泰괘를 가지고 말하자면, 괘상이 ䷊이므로 하정체下正體는

31) 胡炳文, 『周易本義通釋』, 「序」(『通志堂經解』 3冊 수록, 555쪽). 楊自平, 「胡炳文《易》學學統的建立與以《本義》會通眾說析論」, 『成大中文學報』 58, 國立成功大學中文系, 2017, 30~31 쪽에서 재인용. 호병문의 서문은 『통지당경해』에만 실려 있고, 사고전서본에는 없다.

건乾(☰)이고 상정체上正體는 곤坤(☷)이며, 하호체下互體는 대兌(☱)이고 상호체上互體는 진震(☳)이 된다. 따라서 위아래의 호체를 다시 중첩하면 괘상이 ䷵인 귀매歸妹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호괘互卦를 구성하면 정괘正卦에 없던 두 개의 물상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억지로 물상을 추출하기 위해 호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정약용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자연성괘自然成卦’라고 주장한다.

“두 호체로 만드는 괘는 이미 호체를 취하면 저절로 괘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구차히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³²⁾

이 호체는 이미 「계사전」에서 ‘중효中爻’로 다룬 것이지만, 왕필을 기점으로 의리학자들은 호체의 근거를 부정했다. 정약용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짧게 정리했다.

“역사易詞가 모두 호체를 사용하므로, 『춘추』의 관점에서 모두 호체를 논한다. 진晉나라 종회鐘會³³⁾에 이르러 「무호괘론無互卦論」³⁴⁾을 지어 구가九家를 비판하자, 왕필이 그를 좇아 부화뇌동하니, 이것이 호괘가 폐기된 이유이다.”³⁵⁾

32) 『周易四篆』 권1, 「括例表」 ‘互體表直說’(『定本』 제15책, 48쪽). “兩互作卦者, 既取互體, 自然成卦, 非苟爲是工巧也.”

33) 종회鐘會: 225~264. 중국 삼국시기 위魏나라 사람이다.

34) 「무호괘론無互卦論」: 종회鐘會의 글은 원제가 「역무호체론易無互體論」이다. 정약용은 이곳뿐만 아니라 『역학서언』에서도 「무호괘론無互卦論」이라는 이름으로 종회의 「역무호체론易無互體論」을 인용하였다.

35) 『周易四篆』 권1, 「括例表」 ‘互體表直說’(『定本』 제15책, 45쪽). “易詞, 皆用互體, 故『春秋』官占, 皆論互體. 至晉鍾會, 著「無互卦論」, 以譏九家, 王弼從而和之, 此互卦之所以廢也.”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호체법은 정통 의리역이 압도하는 시기에는 활용되지 않다가 공교롭게도 이민족 통치기에 매우 활발히 활용되었고, 그 시기는 의리와 상수를 통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정약용은 역경문을 해석함에 있어 먼저 정체正體만으로 가능하면 정체로 해석하고, 정체만으로 물상物象이 추출되지 않으면 호체互體를 사용한다. 중효中爻의 호체互體만으로도 물상이 추출되지 않으면 호체의 변형태인 대체大體, 겸체兼體, 도체倒體, 복체伏體 및 반합牌合의 형태까지도 활용한다.³⁶⁾

이 호체의 사용에 대해 권위를 실어주는 전거로 주희朱熹를 위시하여 호병문胡炳文 등이 언급된다.

“주자는 ‘호체는 폐기할 수 없다’고 하였고, 호병문과 홍매洪邁³⁷⁾

도 호체를 폐기해선 안 되는 것으로 여겼다.”³⁸⁾

‘호체불가폐互體不可廢’는 주희가 한 말이지만, 실제로 주희는 호체를 그리 긍정하지 않았는데, 주희를 존송하면서도 자신의 호체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주로 끌어다 쓰는 말일 뿐이다. 그러나 정약용은 역사易詞(괘사와 효사)에서 모두 ‘호체’를 사용한다고 보았고, 춘추시기

36) 호체의 변형태인 대체大體, 겸체兼體, 도체倒體 등의 활용법에 대해서는 정약용, 『周易四篆』 권1, 「括例表」 ‘互體表直說’(『定本』 제15책, 45쪽)을 참조.

37) 홍매洪邁: 1123~1202. 중국 남송 시기 요주饒州 파양鄱陽 사람으로 자가 경려景廬, 호가 용재容齋이다. 문집으로 『야처유고野處類稿』와 『지괴필기志怪筆記』가 있고, 필기집으로 『용재수필容齋隨筆』 등이 있다.

38) 『周易四篆』 권1, 「括例表」 ‘互體表直說’(『定本』 제15책, 45쪽). “朱子曰‘互體不可廢’, 胡炳文·洪邁, 亦以互體爲不可廢.”

의 관점官占에서 ‘호체’가 확인된다고 보았다.

2) 지괘之卦 활용의 전거로 수용

관觀괘 육2 효사 ‘규관闕觀’을 풀이하기 위해 모기령毛奇齡과 호병문은 정체와 호체에서 상을 추출했는데, 정약용은 이들이 물상에 없는 뜻을 추출하려다 보니 엉뚱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비판한다. 대신 지괘之卦인 환渙괘 ䷺에서 상을 취하면 ‘규관闕觀’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신³⁹⁾이 ‘곤坤은 문이 닫힌 것을 상징하므로 〈호병문도 그렇게 말함〉,⁴⁰⁾ 훑쳐보는(闕觀) 것이다’라고 한 뜻은 잘못된 것이다. 〈곤坤의 괘형은 가운데에 막힌 것이 없음〉 역례에 진震은 문을 닫음을 상징하는데 〈예豫괘와 복復괘에 나옴〉 환渙괘에 호체 진震이 있기 때문에 훑쳐보는(闕) 것이다.”⁴¹⁾

정약용이 호체를 이용하는 것은 물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효변에 따른 변괘에서도 물상을 취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역학자들이 본괘의 정체와 호체에서만 상을 취하고 있으니 물상의 선택범위가 넓지 못한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괘의 정체 및 호체의 물상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이를 주장하기 위한 희생물로 호병문과 모기령이 이

39) 모신毛姓 → 모기령毛奇齡: 1623~1716. 청나라 모기령의 초명이다.

40) 胡炳文, 『周易本義通釋』(흙정사고전서본), 관觀괘 육2 효사 주. “闕, 坤闕戶象, 柔居內而觀乎外, 有闕觀象.”

41) 『周易四篆』 觀卦 육2, 茶山篆(『定本』 제15책, 256쪽). “毛姓云‘坤爲闕戶(胡炳文亦云), 故爲闕觀’, 其義非也. 〈坤之卦形, 中無阻〉 易例, 震爲閉門(見豫復), 渙有互震, 所以闕也.”

용된 것이다.

아래는 괘 5의 효사 ‘현륙覓陸’의 물상 해석 문제이다.

“주자는 ‘현륙覓陸은 오늘날의 마치현馬齒覓(쇠비름)⁴²⁾이다’라고 하였고(정자는 ‘약해서 잘 꺾인다.’라고 함), 주진朱震은 ‘현륙은 붉은 비름으로 연못식물이다. 상륙商陸⁴³⁾도 연못식물이다’고 하였고(주자는 ‘상륙은 일명 상륙이라 한다.’라고 함), 호병문은 ‘3월에 비름(覓)이 막 생겨난다’고 하였다.(괘 5는 3월괘)”⁴⁴⁾

‘현륙覓陸’이라는 물상은 동물명이 되기도 하고, 식물명이 되기도 하고, 추상명사가 되기도 한다. 한대의 우번虞翻(146~233)은 ‘완목莞陸’으로 개정하였고, 『석문釋文』과 촉재蜀才(?~318)도 우번을 따랐다.⁴⁵⁾ 그러나 같은 후한 시기 순상荀爽(128~190)은 각각 다른 두 종의 풀로 보았다. 비슷한 시기의 동우董遇도 두 종의 풀로 보았다. 반면 마융馬融(79~166)과 정현鄭玄(127~200), 왕숙王肅(195~256)은 한 종의 식물로 파악했다. 주

42) 마치현馬齒覓: 이시진李時珍에 따르면 잎의 모양이 마치 말의 이빨과 비슷하고, 약재의 성질이 매끄러운 것이 비름(覓)과 유사하기 때문에 마치현이라는 명칭을 얻었다고 하며, 오랫동안 잘 시들지 않기 때문에 장명長命이라 하기도 한다고 한다.

43) 상륙商陸: 자리공불휘(『동의보감』). 자리공뿌리로 성질은 평平和하고 맛은 맵고 시며, 독이 많다. 흰 것과 붉은 것이 있는데 흰 것은 약에 넣어 쓰며 소변을 원활하게 해주고, 붉은 것은 독이 많아 외용으로 종기에 붙일 뿐이다. 일명 장류근章柳根 또는 장륙章陸이라 한다.(『동의보감』, 『본초』)

44) 『周易四象』 권5, 夬卦 九五, 茶山篆(『定本』 제16책, 62쪽). “朱子曰‘覓陸, 今馬齒覓’(程子曰, “脆而易折”), 朱震曰‘覓, 蕒, 澤草也. 商陸, 亦澤草也’(朱子曰, “章陸, 一名商陸”), 胡炳文曰‘三月, 覓始生’. (夬者, 三月卦)”

45) 李道平, 『周易集解纂疏』(中華書局, 1994) 夬卦 九五. 纂疏: “陸, 釋文蜀才作陸, 陸與陸古通用.”

희朱熹(1130~1200)도 마치현馬齒覓이라는 한 종의 풀로 보았다.⁴⁶⁾ 반면 『설문』에서는 산양山羊이라 하여 동물로 파악하였다. 원대의 오징吳澄(1249~1333)도 산양이라 하였다.

정약용은 대부분의 의리역학자처럼 괘卦패의 구5의 상황을 양陽이 왕성하게 밀어 올라가 마지막 음陰 한 획만을 남겨놓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곧 건乾괘가 막 되려는 순간의 기운이 넘쳐나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현륙覓陸’을 연약한 풀로 풀이한 것인데, 호병문이 푸릇한 3월의 봄날에 비름이 막 자란다고 하였으니 ‘현륙覓陸’을 연약한 풀인 비름으로 보는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는 견해로 수용한 것이다.

3) 추이推移의 논거 검증으로 활용

아래는 건乾괘 패사 ‘원형이정’을 풀이하며 정약용이 정이의 사덕四德으로 풀지 않고 주희식의 이덕二德으로 해석한 것을 호병문에게서 검증 받은 사례이다.

“공자는 『문언』에서 이미 원형이정元亨利貞을 나누어 네 가지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누었다.”⁴⁷⁾

이 부분에 대해 호병문의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약용은 패사의 현토 ‘원코 형코 리코 정하니라’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원형코 이 정하니라’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의 검증자료로 호병문의

46) 朱熹, 『周易本義』(欽定四庫全書本), 夬卦 九五. “覓陸, 今馬齒覓”

47) 『周易四象』 권1, 乾卦, 「文言」 茶山篆(『定本』 제15책, 103쪽). “夫子, 於『文言』既分而四之, 於此又分而二之.”

역설을 인용한 것이다.

“공자는 「문언전」에서 이미 원형이정을 나누어 네 가지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단전」의 해석처럼 둘로 나누었다. ‘원형元亨’은 만물이 조화의 틀에서 출현하는 것인데 그것이 출현할 때 생존의지가 외부로 드러나고, ‘이정利貞’은 만물이 다시 조화의 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들어갈 때 생존의지를 내부로 거두어 감춘다. 그러므로 건乾괘의 성정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건乾괘의 성정은 오직 하나의 ‘건健’자로 표현될 따름이니, ‘건健(굳셈)’이라는 것은 하늘의 본성(性)이며, 실정(情)은 그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성정을 아울러 말한 것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단전」에서는 ‘성명性命’이라 하고, 여기에서는 ‘성정’이라 하였는데, ‘성性’을 말하면서 ‘명命’을 말하지 않으면 성性の 근본을 아는 것이 아니며, ‘성性’을 말하면서 ‘정情’을 말하지 않으면 성性の 작용을 아는 것이 아니다.”⁴⁸⁾

아래는 역리사법 중 추이推移에 대한 검증용으로 인용된 사례이다. 정약용은 벽괘辟卦에서 연괘衍卦로의 추이를 주요 방법론으로 사용하였는데, 곤困괘가 비괘比로부터 추이한 것임을 우번과 순상의 역설을 통해 증명하였고, 덧붙여 호병문의 역설로 보강하였다.

48) 『주역전의대전』, 「문언전」, ‘利貞者性情也’절의 ‘本義’ 小註, “夫子於文言既分元亨利貞而四之, 至此又如釋象分而二之者也. 元亨萬物之出機, 其出也生意發見於外. 利貞萬物之入機, 其入也生意斂藏於內. 故乾之性情乃可於此而見之. 乾性情只是一健字, 健者乾之性, 而情其著見者也. 且性情並言, 助于此. 釋象曰性命, 此則曰性情, 言性而不言命, 非知性之本, 言性而不言情, 非知性之用也.”

“우번은 ‘괘가 비괘로부터 온다’고 하였으며, 순상은 ‘이는 비괘 괘에 근본하여, 양이 내려와 험난함이 되고 음이 올라가 기뻐함이 된다’고 하였으니, 추이推移에 대한 사승관계가 이와 같다.〈우엄于彖⁴⁹⁾은 “건乾이 내려와 2위에 거하고 곤坤이 올라가 6위로 갔으니, 강획을 가린(揜) 것이다.”라고 함⁵⁰⁾ 호병문은 ‘강획과 유획이 건乾과 곤坤으로부터 2위와 6위로 왕래하였다’⁵¹⁾고 하였다.”⁵²⁾

곤困괘 ䷮가 비괘 ䷗로부터 추이하려면 2효와 6효가 자리바꿈을 해야 한다. 비괘의 육2가 구2로 변하고, 상9가 상6으로 변해야 곤困괘가 된다. 우번은 ‘자비래自否來’를 말하고, 순상은 ‘양강陽降, 음승陰升’을 말했으며, 호병문은 ‘왕래어이여상往來於二與上’을 언급했으니, 추이의 양상이 명확해지는 검증자료로 호병문의 역설이 사용된 예이다.

4) 기타 논거 반박의 소재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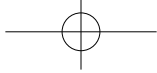
아래는 호병문의 월괘月卦설에 대한 반박이다. 립臨괘의 「단진」 ‘至于

49) 우엄于彖: 미상의 인물. 중국 명나라 때 호광胡廣 등이 칙명으로 편찬한 『주역전대의전』의 곤困괘 「단진」의 소주小註에 짧게 한 번 그의 말이 언급되어 있다. 중국 송나라 때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역의易義』라는 저술이 있으나 전해지지 않는다.

50) 『주역전대의전』 권17의 「단진」 소주小註에 우엄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문은 아래와 같다. “于氏彖曰, 乾上九降居九二而之險, 坤六二上爲上六而掩剛, 成困之義.”

51) 호병문, 『주역본의통석』(흠정사고전서본) 권2, 곤困괘 괘사 통삭通釋, 75a-b. “剛柔自乾坤往來於二與上, 而以九居五, 未嘗變也. 是之謂貞, 是之謂大人, 此其所以吉而无咎也.”

52) 『周易四篆』 권5, 困卦, 괘사 茶山篆(『定本』 제16책, 84쪽). “虞翻云‘卦自否來’, 荀爽云‘此本否卦, 陽降爲險, 陰升爲悅’, 推移之有師承如此. 〈于彖曰, “乾降居二, 坤上爲六, 以揜剛也”〉 胡炳文云‘剛柔自乾坤往來於二與上’.”



八月有凶, 消不久也(8월에 이르러서 흉할 것이라 함은 사그라짐이 멀지 않은 것이다)’를 풀이하면서, 사시를 관장하는 각 달의 괘 가운데 관觀괘를 8월의 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으로 거론된 내용이다. 월괘 月卦설로는 8월은 당연히 관觀괘의 달이지만, 이 림臨괘의 문맥에서는 돈遯괘로 보아야 한다고 호병문 설을 비판한 것이다. 물론 호병문의 월괘설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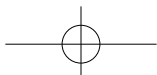
“호병문은 8월을 관觀괘의 달이라고 여겼는데(하나라 달력으로 8월), 이는 번역反易으로 상을 취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사그라짐이 멀지 않다(消不久)’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⁵³⁾

아래는 호병문의 방위方位설에 대한 반박이다. 고蠱괘의 ‘선갑先甲’과 ‘후갑後甲’에 대해 복희의 선천방위를 사용한 호병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또한 호병문의 방위설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문왕의 방위로 풀이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비평한 내용이다.

“호병문은 또 선천방위로(리離는 동쪽, 감坎은 서쪽) 간艮과 손巽의 방위를 설명하였으나, 문왕의 역易이 훗날의 소강절의 그림을 따른 필요가 없다.”⁵⁴⁾

53) 『周易四篆』 권3, 臨卦, 『彖傳』 茶山篆(『定本』 제15책, 249쪽). “胡炳文, 以八月爲觀卦之月(夏正之八月), 此以反易取象也. 若然, ‘消不久’一語, 何以解之?”

54) 『周易四篆』 권3, 蠱卦, 卦辭 茶山篆(『定本』 제15책, 243쪽). “胡炳文, 又以先天方位(離東而坎西), 說艮巽之位, 未必文王之易下遵邵子之圖也.”



6. 맺음말

이상에서 원대의 역학과 조선의 역학이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원대 역학은 송역宋易의 연장선에서 전개된다. 주희의 역학은 정이程頤의 역학을 계승했지만, 정이가 다루지 않았던 상수를 『주역본의周易本義』에서 다룸으로써 자신의 역학이 의리와 상수를 겸비한 것임을 증명했다. 주희가 의리와 상수를 겸비하게 되자 주희 이후의 역학은 주희의 역학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원대 역학은 주희의 역학을 종주로 삼으면서 의리와 상수의 겸비라는 큰 틀 안에서 자신의 독자적 역학 영역을 구축했다.

원대의 대표적인 역학자들이 크게는 주희의 역학이라는 큰 틀을 준수하면서 의리와 상수를 겸비하고, 각각 매우 심화되고 철학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원대 역학은 북송과 남송의 역학 성과가 활짝 핀 꽃에 비유할 수 있다. 송역은 주희 역학을 통해 의리와 상수의 겸비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갖게 된 출발선이고, 경주를 펼친 것은 원대 역학자들이라고 하겠다. 표면적으로 주희 역학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깊이와 정밀도를 높여갔다. 주희가 구조를 찼다면 원대 역학자들이 구조를 채운 것이라 할 것이니 단순히 송역의 아류 정도로 원대 역학을 다루는 것은 좀 부당하다.

한편 한국 역학사에 있어 원대 역학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보다도 비중과 위상이 클 수밖에 없다. 멀리 삼국시대부터 한국에서는 중국 유학 경전이 수입되어 교육되었는데, 중앙과 지방의 학교에서 공히 『주역』을 강의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주역 해석시는 여말선초에나 시작되고, 이 시기는 원대 역학의 영향을 짙게 받던 때이다. 따라서 조선의 역학은 태생부터 의리와 상수를 겸비하는 원대 역학의 기본 정신을 준수

하면서, 개인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원대의 학술 추세는 명나라 때에도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희가 『주역본의』와 『역학계몽』에서 말하고자 한 의리와 상수를 겸비한 상수역학, 곧 도서학적 상수역이었다. 원대 역학이 송대 역학의 큰 틀 속에서 발전한 것은 맞지만, 아류에 머무는 것은 아니며 역학의 분과적 철학화 작업이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원대라고 할 것이다.

한국 역학사에서 원대 역학의 흔적은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오징뫼澄은 조선 역학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조선 중기 조호익의 『역상설易象說』은 현대의 상수학적 방법론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는데, 호일계胡一桂와 남송의 주진朱震의 역학 등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상수역학 방법론은 조선 후기의 정약용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외에도 조선 역학자들의 문장 속에 원대의 호일계胡一桂, 호병문胡炳文, 동진경董眞卿 등의 역설이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으니 원대 역학은 그 가치와 위상이 결코 작지 않다.

그중에서도 정약용의 역학 속에 수용된 호병문의 역학을 살펴보면, 대체로 네 가지 용법으로 활용되었다. 첫째는 역리사법 가운데 호체互體의 사용에 대한 보증이고, 둘째는 지괘를 통한 새로운 물상物象 활용에 대한 적용이며, 셋째는 추이推移의 논거 검증용 소재로 인용되는 사례이고, 넷째는 여러 설에 대한 반박 소재로 활용되는 예이다.

정약용은 역경문을 해석함에 있어 먼저 정체正體만으로 물상을 추출하고, 정체만으로 물상物象이 추출되지 않으면 호체互體를 사용하였다. 이 호체의 사용에 대해 권위를 실어주는 전거로 주희朱熹를 위시하여 호병문胡炳文 등을 언급했다. 또한 정약용이 호체를 이용하는 것은 물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더 많은 물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괘之卦의 정체 및 호체의 물상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 방법론으로 호병문

등의 역설이 제시되었다. 그 외에도 호병문의 역설은 정약용 역설의 검증용으로 인용되기도 하고 반박용 소재로도 활용되었다. 호병문의 역설은 이처럼 다양하게 정약용의 역설에 영향을 주었으며, 정약용의 역리사법易理四法 가운데 호체互體와 물상物象 같은 일부의 방법론에 있어 주희의 역설과 함께 거론되면서 정약용의 역설을 보증해주는 기능적 역할을 하였다.

(논문투고일 2023년 3월 30일, 심사확정일 2023년 4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11일)

참고문헌

원전

李鼎祚, 『周易集解』.

程頤, 『伊川易傳』.

朱熹, 『周易本義』.

『周易傳義大全』(학민문화사본), 2008.

『四庫全書總目提要』

趙采, 『周易程朱傳義折衷』, 四庫全書本.

李鼎祚, 『周易集解』, 四庫全書本.

董眞卿, 『周易會通』, 四庫全書本.

曹好益, 『芝山集』

金奎五, 『讀易記疑』

丁若鏞, 『周易四箋』·『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중국과 국내 단행본

張善文 著, 『歷代易家與易學要籍』,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1998.

潘雨廷, 『讀易提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劉云超, 「融通和會 自得於心—宋儒王申子理氣觀的特色與價值」, 『철학연구』 136, 대한철학회, 2015.

朱伯崑 주편, 『周易知識總覽』, 濟南: 齊魯書社, 1993.

- 廖名春, 康學偉, 梁韋弦 共著, 『周易研究史』, 長沙: 湖南出版社, 1991.
- 林忠軍, 『象數易學發展史』, 齊南: 齊魯書社, 1998.
- 徐遠和, 『洛學源流』(손홍철 역, 『이정의 신유학』, 동과서, 2011).
- 楊自平, 「胡炳文《易》學學統的建立與以《本義》會通眾說析論」, 『成大中文學報』 58, 國立成功大學中文系, 2017.
- 廖名春, 康學偉, 梁韋弦 公저,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4
(원저: 廖名春, 康學偉, 梁韋弦 共著, 『周易研究史』, 長沙: 湖南出版社, 1991).
- 李中生 저, 임채우 역, 『언어의 금기로 읽는 중국문화』, 동과서, 1999.
- 정약용 지음, 방인·장정욱 옮김, 『주역사전』, 소명출판사, 2007.
- 방인, 『다산 정약용의 주역사전, 기호학으로 읽다』, 예문서원, 2014.
- 엄연석, 『조선전기역철학사』, 학자원, 2013.
- 정병석, 『점에서 철학으로』, 동과서, 2014.
- 황병기, 『정약용의 주역철학』, 동과서, 2014.

논문

- 김인철, 「퇴계와 지산의 『주역』 해석」, 『퇴계학과 유교문화』 36,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5.
- 엄연석, 「조호익 역학의 상수학적 방법과 의리학적 목표」, 『대동문화연구』 3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 윤석민, 「조호익 『역상설』의 해석틀 분석(1)」, 『동양철학』 40, 한국동양철학회, 2013.
- _____, 「조호익 『역상설』의 해석틀 분석(2)」, 『철학논총』 76, 새한철학회, 2014.
- 임재규, 「조호익 『역상설』의 상수학적 연원」, 『대순사상논총』 38, 대진대

학교 대순사상학술원, 2021.

황병기, 「성호학파의 주역 상수학설 연구—李瀾, 愼後聘, 丁若鏞의 易象說
을 중심으로」, 『다산학』 26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5.

_____, 「원대 이후 『주역』 주석사에 나타난 중부괘 豚魚의 의미 연구」,
『온지논총』 37, 온지학회, 2013.

국문요약

이 글은 한국의 주역학 형성기에 원대의 역학 추세를 살펴보고, 조선 역학의 기본적인 추세와의 상호 관련성을 탐구한 논문인 동시에, 특별히 정약용 丁若鏞의 역학 속에 수용된 원대 역학자 호병문 胡炳文의 역설의 양상을 분석한 논문이다.

원대의 역학과 조선의 역학은 태생부터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원대 역학은 송역 宋易의 연장선에서 전개된다. 주희의 역학은 정이 程頤의 역학을 계승했지만, 정이가 다루지 않았던 상수를 『주역본의 周易本義』에서 다룸으로써 자신의 역학이 의리와 상수를 겸비한 것임을 증명했다. 주희가 의리와 상수를 겸비하게 되자 주희 이후의 역학은 주희의 역학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원대 역학은 주희의 역학을 종주로 삼으면서 의리와 상수의 겸비라는 큰 틀 안에서 자신의 독자적 역학 영역을 구축했다.

원대의 대표적인 역학자들은 크게는 주희의 역학이라는 큰 틀을 준수하면서 의리와 상수를 겸비하고, 각각 매우 심화되고 철학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표면적으로 주희 역학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깊이와 정밀도를 높여갔다. 주희가 구조를 찢다면 원대 역학자들이 구조를 채운 것이라 할 것이니 단순히 송역의 아류 정도로 원대 역학을 다루는 것은 좀 부당하다.

한국 역학사에서 원대 역학의 흔적은 광범위하다. 그중에서도 정약용의 역학 속에 수용된 호병문의 역학을 살펴보면, 대체로 네 가지 용법

으로 활용되었다. 첫째는 역리사법 가운데 호체互體의 사용에 대한 보증이고, 둘째는 지패를 통한 새로운 물상物象 활용에 대한 적용이며. 셋째는 추이推移의 논거 검증용 소재로 인용되는 사례이고, 넷째는 여러 설에 대한 반박 소재로 활용하는 예이다. 호병문의 역설은 이처럼 다양하게 정약용의 역설에 영향을 주었으며, 정약용의 역리사법易理四法 가운데 호체互體와 물상物象, 추이推移와 같은 일부의 방법론에 있어 주희의 역설과 함께 거론되면서 정약용의 역설을 보증해주는 기능적 역할을 하였다.

주제어 | 원대역학, 조선의 역학, 다산역학, 주희, 주자역학, 호병문, 정약용, 상수학, 의리학, 도서학.

Abstract

Reevaluation of Yi-ology(易学) of Yuan Dynasty and the Status of Hu Bing-wen in Tasan's Yi-ology

Hwang Byong-kee

Special Professor, SeoKyeong Un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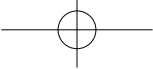
This article examines the trend of Yi-ology in the Yuan Dynasty during the formative period of Korea's Yi-ology, and explores the mutual relationship with the basic trend of Yi-ology in Joseon Dynasty. At the same time,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s the aspect of Yi-ology of Ho Bing-wen(胡炳文), an Yi-ologist in the Yuan Dynasty, who was accepted into the Yi-ology of Jeong Yak-yong(丁若鏞).

The Yi-ology of the Yuan Dynasty and the Yi-ology of Joseon Dynasty had no choice but to have a very close relationship from birth. The Yi-ology of the Yuan Dynasty are developed in the extension of the Song Dynasty. Zhu Xi's Yi-ology inherited that of Cheng Yi(程頤), but he proved in *ZhouYiBenYi*(『周易本義』) that his own Yi-ology had both the Learning of Image and Number and the Learning of Meaning and Principle by dealing with the Learning of Image and Number that Cheng Yi had not dealt with. As Zhu Xi had both the Learning of Image and Number and the Learning of

Meaning and Principle, it was difficult for Yi-ology after Zhu Xi to escape from the scope of Zhu Xi's Yi-ology. The Yi-ology in the Yuan Dynasty took Zhu Xi's Yi-ology as the head and established its own independent Yi-ology field within the big frame of the combination of the Learning of Image and Number and the Learning of Meaning and Principle.

Representative Yi-ologists of the Yuan Dynasty largely followed the large framework of Zhu Xi's Yi-ology, combined the Learning of Image and Number and the Learning of Meaning and Principle, and each went through a process of deepening and philosophizing. On the surface, it may seem like it doesn't deviate from the big frame of Zhu Xi's Yi-ology but internally, the depth and precision have been increased. If Zhu Xi made the structure, it would be said that the Yi-ology of Yuan dynasty filled contents in the structure, so it is a bit unfair to treat the Yi-ology of Yuan Dynasty as a mere imitation of Song Dynasty.

In the history of Yi-ology in Korea, the traces of Yuan Dynasty's Yi-ology are extensive. Among them, looking at the Yi-ology of Hu Bing-wen accepted in the Yi-ology of Jeong Yak-yong, they were mostly used in four ways. The first is a guarantee for the use of Huti(互體), and the second is the application to the use of new objects through Zhigua(之卦). The third is a case that is cited as a material for verifying the argument of Tuiyi(推移), and the fourth is an example that is used as a material to refute various theories. The Yi-ology of Hu Bing-wen influenced the Jeong's Yi-ology in various



ways, and among the four methods of interpretation of Jeong Yak-yong, some of the methodologies such as Huti(互體), Objects(物象), and Tuiyi(推移) was mentioned along with Zhu Xi's Yi-ology, it played a functional role in guaranteeing the Yi-ology of Jeong Yak-yong.

Key Words | Yi-ology(易學) of Yuan Dynasty, Yi-ology of Joseon Dynasty, Tasan's Yi-ology, Zhu Xi's Yi-ology, Zhu Xi(朱熹), Hu Bingwen(胡炳文), Jeong Yak-yong(丁若鏞), the Learning of Image and Number, the Learning of Meaning and Principle, Iconographic Image-numerology.

